

‘진도 고속철도 추진위원회’ 명량대첩축제로 홍보·서명운동

진도 고속철도 유치 염원 서명운동과 학생 백일장 대회

‘진도 고속철도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명량대첩축제로 고속철도의 유치를 염원하는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진도 고속철도(목포역 ~ 진도항)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도군의 기관, 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축제 기간에 현장에서 운영된 홍보관(부스)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진도교육지원청,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가 후원하며, 진도군, 한국문인협회진도지부의 주관으로

‘학생 백일장 대회’가 열려 미래세대 진도군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됐다.

학생 백일장 대회에서는 ‘내가 꿈꾸는 진도의 미래, 고속철도가 열어야 할 희망’이라는 주제로 관내의 초·중·고 학생 210명이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포역에서 진도항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려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 고속철도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진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



한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학생 백일장 대회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지역 발전의 희망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진도

군 연장 방안’에 대한 강구를 약속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거리에 비례해 수도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를 언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완도군, ‘맨발 걷기로 나눔 실천’ 챌린지 함께 해요!

10월 한 달간 진행, 취약 계층 위해 한걸음당 1원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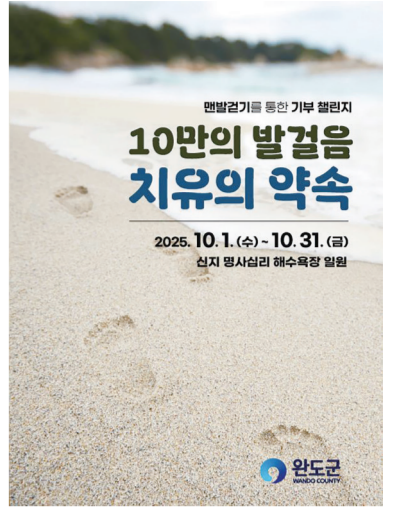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10만 명과 해양기후·문화, 맨발 걷기 등 누적 치유객 50만 명 달성을 기념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치유 맨발 걷기 나눔 챌린지’를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9월 29일부터 완도군청과 완도해양치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신청도 병행한다.

챌린지 참여는 걷기 앱을 통해 한 걸음당 1원이 적립되며 기부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해양치유 바우처’로 환원되어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걷기 코스는 신지 명사십리 해변(2.6km)과 맨발 황톳길(1km)로 총 4.2km이며 완주 시 약 7천 걸음이 기록돼 한 사람당 7천 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챌린지 운영 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기준 오전 6시 30분, 오후 5시 30분이며, 토요일에는 관광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후 3시, 5시 30분에 진행된다.

특히 챌린지 5회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대형 현수막에 참여자 발 도장을 남기는 ‘치유의 약속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 기부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은 챌린지를 통해 ‘건강 증진’, ‘나눔 문화 확산’, ‘사회적 상생 실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맨발 걷기 나눔 챌린지는 해양치유 1번지 완도가 전국에 건강과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면서 “참여자의 한걸음 한걸음이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재양성 기금 선발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지난 25일 ‘2025년 제2회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요강안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요강’과 함께 장학

함평군, 인재 육성 총력... 하반기 장학생 255명 선발한다

제2회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선발 요강 등 심의

생 선발 규모가 논의됐다. 군은 대학생 지역인재, 성적 우수, 학업 장려 세 분야에서 총 255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선발 요강은 함평군 공식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평군은 지역인재 및 성적 우수 유형으로 대학생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 학업장려금 유형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인재 양성이 곧 함평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카메라 뉴스



화순읍, 안전한 밤길을 위해 민·관 합동 야간 순찰 나서

화순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영일)는 지난 23일과 25일 저녁 화순읍 이장협의회장, 변영희장, 화순읍 지구대장, 역전파출소장 등 방범대원 40여 명과 함께 간담회 및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야간 순찰은 주민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보안등의 점등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유동 인구가 많고 방법 시설이 미흡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최용호 화순읍이장협의회장은 “자율·역전 방범대 여러분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병규 읍 변영희장 또한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화순/김중환 기자



영광군 자위소방대 자체 소방훈련 실시

영광군은 지난 25일 영광군청에서 자위소방대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 했다. 이번 훈련은 영광군청 자위소방대의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화재경보기가 울릴 시 소화, 피난 등의 훈련이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화기 종류에 따른 자세한 사용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화재발견 및 초기 신고 방법, 대피 유도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영광군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위소방대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실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곡성 흑찰옥수수, 옥과농협 통해 미국 소비자들과 만나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5일 옥과농협 농산물유통센터(APC)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흑찰옥수수의 첫 상차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군수, 곡성군의회의장, 옥과농협 조합장, 농협 곡성군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첫 수출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선적된 물량은 냉동 흑찰옥수수 4.5톤(300박스)이다. 물량은 나주 수출업체를 거쳐 부산항에서 선적 후 미국 LA항을 통해 뉴저지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옥과농협이 해외 상설 판매장 관측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례로 농가와 행정의 함께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